

남부지역의 출토유물을 통하여 고구려 벽화에서 보이는 갑주에 관한 고찰

金正子

대전우송정보대학 패션디자인과 부교수

A Study on Armours Appeared in Kokuryeo Wall Paintings through Excavated Remains in the Southern Region

Jeong Ja Kim

Associated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Woosung Information College

Abstract

There are many battle paintings among wall paintings in Kokuryeo. Most warriors in paintings wore armours in full kit.

Armours in Three-Kingdom Period were contrived for strategy. They have been checked that Pangab suitable for infantry action had been worn in Shilla while flexible Chalgab for cavalry battle had been worn in Kokuryeo. As cavalry strategy in Kokuryeo was brought to Kaya Kingdom via battles in fifth century, Chalgab became also worn in South area.

Pangab, Shaejagab and Nubigabot as well as Chalgab had also been worn on view of wall paintings. There were many kinds of helmets such as Jongjang-panju, Mangokjongjang-panju, Kwanmonhyoungbok-balju, Chongkakju and Kwaehyoungju. Accesory-Armours are Sanggab, Kyounggab, Sangbakgab, Gwinggab, Daetwaegab and Kyounggab.

Those helmets and Accesory-Armours are quite similiar to excavations from Shilla, Kaya Kingdom area. As Kokuryeo wall paintings are related to excavations from South area, armours and helmets in those wall paintings can be a good data to investigate the full shape of excavations and how to use, while excavations are very useful to the study on method of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of armours and helmets.

I. 서론

고구려 벽화의 연대는 대강 4~7세기로 추정되는데 이 때 삼국은 영토확장을 위해 전략과 무기

의 개발을 촉진하였다. 고구려의 戰術은 武士는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重武裝하고 長槍을 쥐고 馬甲을 입힌 馬을 타고 集體隊形으로 공격하는 長槍騎馬戰鬪가 시행되었고,¹⁾ 무기는 弓矢, 弩, 投石機와 같은 공격무기와 방패, 갑옷, 투구

1) 李殷昌, 「韓國服飾의 歷史」, 서울, 世宗大王記念事業會, p.137, 1978.

와 같은 방어용 무기를 사용하였다.

삼국시대의 갑옷은 크게 札甲과 板甲이 있는데 찰갑은 작은 철판으로 유동성을 갖도록 만들어서 騎馬戰에 적합하였고, 판갑은 비교적 큰 철판을 고정시켜 만들었기 때문에 步兵戰에 적합하였다. 고구려에서는 벽화를 통해 볼 때 기마전을 주로 했기 때문에 찰갑을 많이 착용하였고, 남부지역에서는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판갑이 많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보병전을 많이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5세기에 이르러 남부지역에서도 기마전을 채택함에 따라 찰갑을 착용한 것이 출토유물을 통해 확인된다.²⁾

고구려의 벽화에서 보이는 갑주와 남부지역의 출토된 갑주는 서로 유사한 점이 매우 많고, 또 목과 팔, 다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부속갑도 많이 유사하였다.

따라서 남북의 유물을 서로 비교하면서 갑주의 재료와 형태, 구성방법, 착장법, 착용상태를 유추해 보는 것은 의의있는 연구라고 사료된다.

남북의 유물을 볼 때 고구려 벽화를 통하여 남부지역에서 출토된 갑주의 完形과 착장법, 착장상태를 알 수 있고, 남부지역의 유물을 통하여 벽화에서 보이는 갑주와 부속갑의 재료와 구성방법, 제작법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많이 퇴색되고 부식된 벽화와 출토유물을 고증함에 있어 약간의 무리가 없지 않을 것이지만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벽화에 그려진 갑주와 부속갑의 재료와 구성방법, 제작법에 대해 출토유물을 통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II. 갑 옷

1. 札 甲

찰갑은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의 유동성을 갖도록 좁고 긴 쇠철판을 橫으로 葦結한 후 縱으로 垂結하여 상하의 유동성을 갖게 한 허리 정도 내려오는 갑옷이다. 찰갑의 종류는 胴丸式 札甲과 襠襠式 札甲이 있는데 胴丸式 札甲은 앞중앙

에서 開閉하도록 한 갑옷이고 襠襠式 札甲은 앞뒤판을 양 어깨에서 연결하여 옆에서 개폐하게 되어 있는 갑옷으로 중국에서 많이 착용하였다.

벽화에서 찰갑을 착용한 모습은 안악3호분, 팔청리고분, 약수리고분, 통구12호분, 삼실총, 대안리고분, 쌍영총의 기병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안악3호분을 통해 볼 때 지휘관 계급의 기병은 몸통과 팔, 다리까지 중무장하였고 낮은 계급에서는 직급과 역할에 따라 부분갑옷을 착용하였다.

찰갑의 하단에는 허리를 보호하도록 彎曲된 腰甲이 부착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골반부분을 보호하는 糞甲이 부착되어 있다. 안악3호분의 개마무사가 착용한 찰갑은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어 胴丸式 札甲으로 추정되며³⁾ 찰갑 하단에서 彎曲된 腰甲을 볼 수 있다.

벽화를 보면 찰갑과 함께 여러 종류의 투구를 착용하였는데 안악3호분과 약수리고분에서는 목가리개와 首尾部가리개가 부착된 縱長板靑을 착용하였고, 쌍영총벽화에서는 彎曲縱長板靑을 착용하였다. 그리고 통구12호분 벽화에서는 冠帽形 伏鉢靑을 착용하였고 삼실총벽화 중 제1서벽에 그려진 무사는 衝角靑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갑주 이외에 부속갑으로 팔에는 上膊甲과 肱甲을 착용하였고 다리에는 大腿甲과 脛甲을 착용하였는데 모두 찰갑으로 되어 있다. 목에는 나팔모양의 크고 높은 頸甲을 착용하였다.

투구와 부속갑의 명칭과 형태에 대해서는 다음項에서 詳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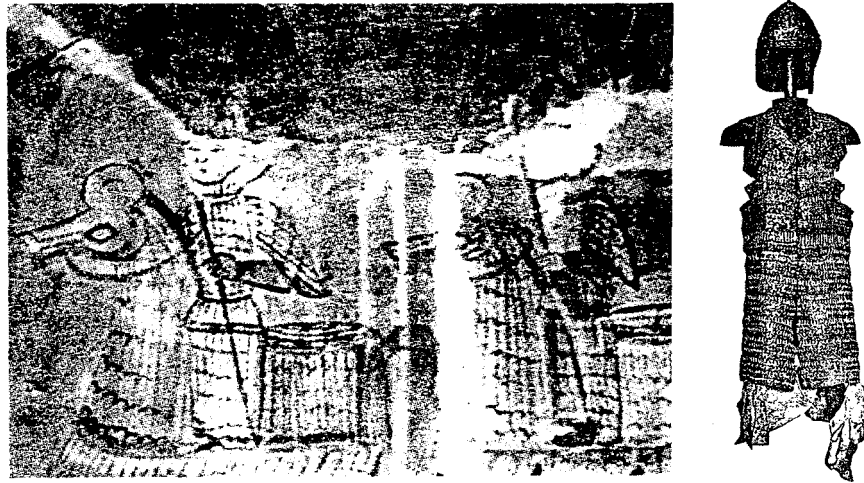
남부지역에서는 복천동11호분, 황남동고분, 지산동고분, 함양 상백리고분, 부산 오륜대채집 등에서 찰갑이 출토되었으나 아직 복원되지 못하고 있어 외국의 찰갑을 통해 제작법을 알 수 있다

2. 板 甲

판갑은 출토유물을 통해 보면 비교적 큰 철판을 고정시켜 만든 갑옷으로, 갑편의 형태에 따라 장방형의 철판을 縱으로 연결하여 만든 縱長板甲과 장방형의 철판을 橫으로 연결하여 만든 橫長板甲이 있고, 橫長板 사이 사이에 삼각판을 이은 판을 연결하여 만든 三角板甲이 있다.

2) 申敬鐵, 「古式鎧子考」 『釜山史學』 第9輯, 釜山, 釜山大學校史學會, p.163, 1885.

3) 宋桂鉉, 「三國時代의 鐵製甲靑의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114,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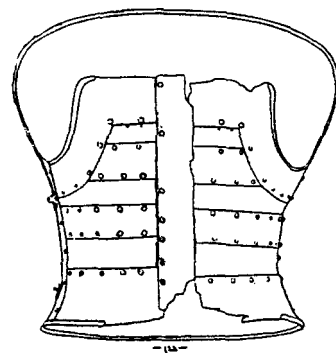
<그림 1> 안악 3호분의 기사의 찰갑(벽화)과 동환식 찰갑(A Glossary of the Construction Decoration and Arms and Armor)

판갑은 앞 正中에서 개폐하도록 되어 있고 길이는 허리 정도 내려오는 길이이며 판갑 하단에는 매우 넓은 札片로 만든 腰甲이 있고 요갑 아래에는 넓은 裳甲을 착용하고 있다.

중장판갑은 김해 예안리, 황남동고분, 복천동고분 등에서 출토되었고 횡장판갑은 지산동고분,

함천쌍핵옥전에서 출토되었으며, 삼각판갑은 김해 가달고분채집군, 복천동고분, 함양 삼백리고분 등에서 출토되었다.

벽화에서 판갑은 덕흥리고분의 기병과 통구12호분의 기병이 착용한 갑옷은 小札이 보이지 않아 板甲으로 추정되며, 갈색으로 표현된 것으로



<그림 2> 덕흥리고분의 판갑(고구려 고분 벽화)과 지산동고분 출토 판갑

보아 목제이거나 혁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벽화가 선명하지 못하여 그 구성법을 확인할 수 없다.

덕흥리고분에서 보이는 騎馬武士가 착용한 투구는 几形冑로 추정되며 목에는 넓은 경갑을 착용하였다. 팔에는 부속갑을 착용하지 않았고, 다리에는 누비갑옷으로 된 대퇴갑과 경갑을 착용하고 있다.

3. 鎖子甲

쇄자갑은 남부지역에서 출토된 바 없으나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형태는 창덕궁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시대의 쇄자갑과 유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쇄자갑의 구성법은 1cm의 쇄고리를 2중으로 연결하여 만든 것으로 가슴 正中에서 습하게 되어 있다.

벽화에서는 안악2호분의 두 수문장이 쇄자갑을 착용하고 각각 長槍과 環頭大刀를 휴대하고 있다. 수문장이 착용한 쇄자갑은 앞이 딱혀 있고 길이는 둔부를 덮고 있으며 허리에는 허리띠를 매었다. 상박부를 보호하는 상박갑은 胴甲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투구는 간주와 상모를 장식한 종장판주를 쓰고



<그림 3> 안악2호분의 쇄자갑(고구려 고분 벽화)과 창덕궁 소장 쇄자갑(조선 시대 궁중복식)

있고, 투구의 좌우 하단에 雙角을 부착하여 위용을 줄 뿐 아니라 귀를 보호하고 있다. 목에는 나팔모양의 높은 경갑을 착용하고 있고, 다리를 보호하는 대퇴갑과 경갑은 구분이 되지 않게 바지 형태로 되어 있다.

4. 누비갑옷

감신총벽화와 덕흥리고분에서 보이는 갑옷은 斜格字紋과 橫線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누빈갑옷으로 추정하고 있다.⁴⁾ 덕흥리고분의 기병이 착용하고 있는 囊甲, 대퇴갑, 脛甲도 사격자문으로 표시되어 있어 누비갑옷으로 추측되는데, 삼국시대는 숨을 만들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헌의 기록과 주변국가의 상황으로 보아 딱나무류를 넣었을 것이다.⁵⁾

남부지역에서는 누비갑옷이 부식 때문인지 출토되지 않았다.

감신총의 무사는 상체만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胴甲과 囊甲, 상박갑이 이어져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頸甲은 높게 겹치게 여미었고 허리



<그림 4> 감신총의 누비갑옷

4) 李康七, 「고구려 벽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갑주』, 放送月報, 제9호, p.15, 1981.

5) 金正子, 「韓國 軍服의 變遷史 研究」, 民俗苑, p.153, 1998.

에는 띠를 매었다. 투구는 종장판주를 쓰고 있는데 불가리개와 首尾部가리개는 부착하지 않았고 정상에 크고 높은 鳥羽로 장식하고 있다.

Ⅲ. 투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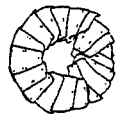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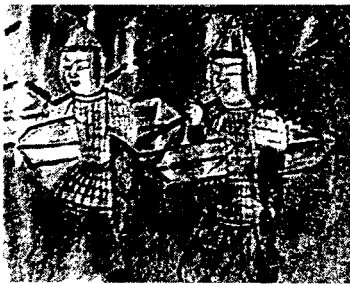
1. 종장판주

縱長板胄는 출토유물을 통해 보면 最古의 투구로 안으로 원 좁고 긴 철판을 좌우로 겹쳐서 뒤쪽으로 순서대로 가죽끈으로 連接하여 제일 뒤쪽에는 철판을 좌우철판의 안쪽으로 대어 冑體를 완성하였고 정상에는 작은 伏鉢을 얹어 마무리하였다. 투구의 하단에는 불가리개와 수미부가리개를 부착한 것도 있다.

벽화에서는 안악3호분의 기병과 창수, 감신총의 환도수, 안악2호분의 창수 등에서 볼 수 있다.

남부지역의 유물로는 김해 예안리 150호분, 황남동고분, 복천동고분 등에서 출토되었다.

안악3호분의 기병이 착용한 투구는 불가리개와 수미부가리개를 부착하였고 정상에는 간주와 象毛로 장식하였다. 감신총의 기병은 불가리개와 수미부가리개를 부착하지 않았고 정상에 높이 鳥羽로 장식하였다. 안악2호분의 수문장은 투구 양쪽에 雙角으로 장식하여 불가리개를 대신한 것으로 보이고, 투구의 頂上은 간주와 象毛로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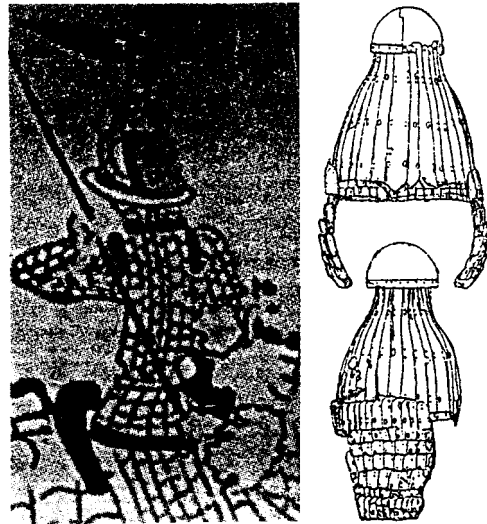
<그림 5> 안악3호분의 종장판주(벽화)와 김해 예안리 출토 종장판주

2. 彎曲縱長板胄

만곡종장판주는 고구려의 토착계 투구이다. 출토유물을 통해 보면 좁고 긴 철판을 S자로

구부려 冑體를 만드는데, 투구 정면에는 끝이 삼각형으로 돌출된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眉間部 철판이 있고 이 眉間部 철판을 중심으로 좌우로 철판을 안쪽으로 대어 가죽끈을 이용하여 엮어 나갔다. 투구의 정상은 작은 복발을 얹었고 전후 좌우에 쌍각장식을 하고 간주를 세우고 흑모로 장식하였다. 투구 아래에는 불가리개와 수미부가리개를 부착하였다.

벽화에서는 쌍영총의 기병에서 볼 수 있는데, 유물로는 복천동11호분, 함천 쌍책옥전, 지산동고분 등에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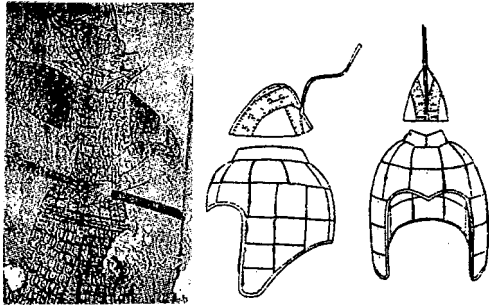


<그림 6> 쌍영총의 만곡종장판주와 복천동11호분 출토 만곡종장판주

3. 冠帽形伏鉢胄

관모형복발주는 함천 반계제고분가-A, 전 창령고분, 동래 연산동고분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함천 반계제고분의 관모형복발주는 33개의 네모난 작은 철판으로 冑體, 불가리개, 수미부가리개를 구분없이 제작하였고, 그 위에 작은 弁形의 관모를 복발로 얹었다.

벽화에서는 삼실총과 동구12호분에서 보이는 투구는 方形의 소창로 되어 있고 복발로 상부를 덮고 있어 관모형복발주로 보인다. 투구의 좌우에 雙角장식을 하고 있어 위엄을 주고 귀가리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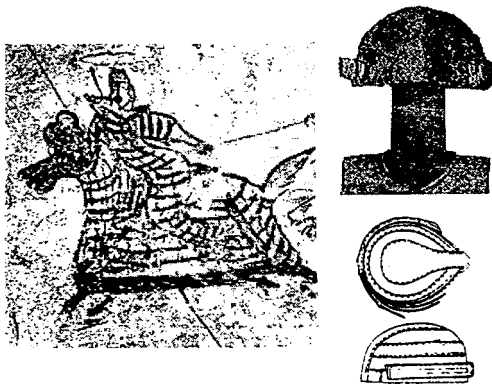
<그림 7> 삼실총의 관모형북발주(벽화)와 반계제고분의 관모형북발주

4. 衝角冑

충각주는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冑體의 앞은 배의 앞부분과 같이 각을 이루었고, 측면에서 보면 산모양으로 되어 있어 화살이 좌우로 피해 가도록 했다. 冑體는 4枚의 帶狀鐵板이나 가죽을 상하로 대어 고정시키고 받주각 모양의 凸面鐵板이 앞면에서 연이어 頂部를 덮고, 투구 하단에는 3枚의 帶板으로 구성된 수미부(首眉部)가리개를 부착하였다.

충각주는 지산동 32호분, 부산 오름대채집, 함양 상백리고분 등에서 출토되었다.

벽화에서는 삼실총 제1실 서벽의 攻城圖에서 뒤를 돌아보며 도망하는 기병이 쓴 투구가 충각



<그림 8> 삼실총의 충각주(벽화)와 지산동32호분 출토 충각주

주로 추측되는데, 투구의 頂上에 간단한 장식이 있다. 일본에서 복원작업이 끝난 충각주를 보면 투구의 형태와 구성법이 남부지역에서 출토된 유물과 일치하는데 투구 정상에 새가닥으로 된 三尾鐵장식⁶⁾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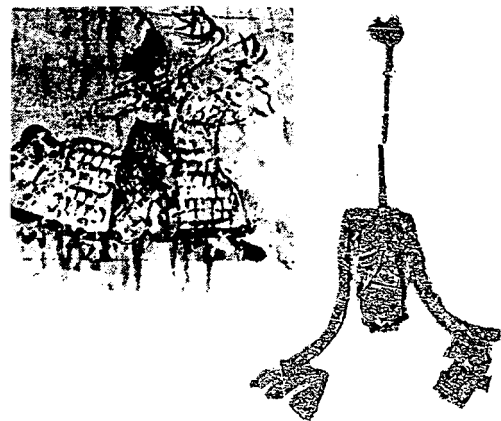
5. 几形冑

계형주는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보면 전체적인 형태는 위가 좁은 사다리꼴 모양이 많고 등근 산모양도 있다.

천마총에서 출토된 계형주는 几形의 冑體와 立飾의 2부분으로 되어 있다. 주체는 藤心과 같은 지름 2mm 내외의 식물성 재료를 사용하여 그것을 합친 것을 종횡으로 엮어서 투구의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사이에 두고 外面에 얇은 1.5cm 폭의 竹皮를 5.4cm 간격을 두고 엮어 씌우고 흑갈색의 옷칠로 고정하였다. 정상에는 높이 25cm의 간주를 세우고 끝에 영락을 수 없이 달았다. 출토된 계형주에서는 하단에 부착된 목가리개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섬유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계형주는 금관총, 천마총, 양산부부총, 식이총, 호자총, 금령총 등에서 많이 출토되었다.

벽화에서는 덕흥리고분의 개마무사가 착용한 투구가 계형주로 보이는데 갈색으로 표현되어 있어 유기질 즉 가죽이나 나무로 만든 계형주로 보



<그림 9> 덕흥리고분의 계형주(민속옷차림)와 천마총 출토 목제 계형주

6) 和田有司, 「日本上代の甲冑」, 東京, 創元社, p.15, 1934.

인다. 투구의 정상에는 길고 높은 간주를 세우고 끝에 등근 장식이 있다. 투구의 하단에는 목가리개가 부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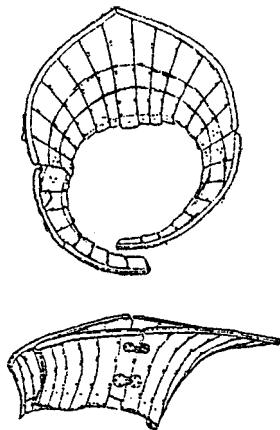
IV. 部屬具

1. 頸甲

頸甲은 목을 보호하는 部屬具의 하나로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좁고 긴 철판을 連接하여 만들었는데 앞이 낮고 뒤가 높은 나팔모양이고 앞에서 개폐하게 되어 있다.

頸甲은 복천동 11호분, 합천 쌍책옥전고분, 남원 월산리고분 등에서 출토되었다.

벽화에서는 쌍영총의 기병, 안악 3호분의 기병, 삼실총의 환도수와 기병 등에서 볼 수 있는데 벽화에서 보이는 頸甲과 유물의 형태가 일치하고 있어 남북간의 교류를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그림 10> 복천동 11호분의 경갑

2. 上膊甲과 肘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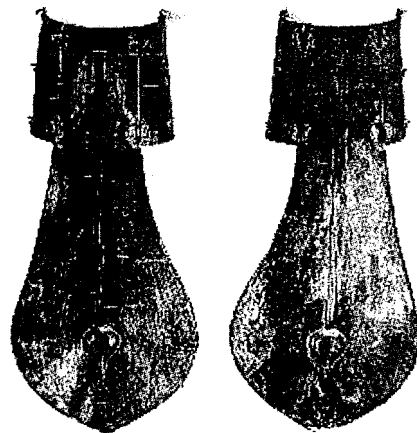
상박갑은 팔꿈치 윗 부분을 보호하고 평갑은 팔꿈치 아래에서 팔목 부위를 보호한다.

벽화에서는 안악 3호분의 궁수와 창수, 삼실총의 기병, 안악 2호분의 창수, 통구 12호분의 창수와 쌍영총의 기병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상박갑과 평갑을 모두 착용하거나 상박갑만 착용하기도 하였다.

통구 12호분과 쌍영총에서는 찰갑과 같은 재질

의 상박갑과 평갑을 하나로 이어서 착용하였고, 안악 2호분의 수문장은 쇠자갑과 같은 재질의 상박갑만 착용하고 있다. 안악 3호분의 투구는 원통형의 갈색으로 된 평갑을 착용하고 있고, 같은 벽화에서도 櫓手는 찰갑으로 된 짧은 상박갑과 원통형의 평갑을 착용하고 있다. 삼실총의 환도수는 갈색 상박갑을 착용하고 있고 평갑은 2매의 철판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평갑은 황남동 98호, 금관총, 천마총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벽화에서 보이는 평갑과 형태가 많이 달라서 腰甲으로 추정되어 왔었다. 황남동 98호에서 출토된 평갑은 상부는 寶珠形이고 하부는 좁아지면서 좌우에 소형의 금동편을 경첩으로 부착하여 하각부를 감아 묶게 되어 있다.



<그림 11> 황남동출토 평갑

3. 裳甲

상갑은 腰甲 아래에 골반부위를 보호하는 부속구이다. 복천동고분에서 출토된 상갑은 찰갑 아래 비교적 정연하게 4段 출토되었으나 아직복원하지 못하여 완형을 알 수 없다. 유물은 복천동고분, 지산동고분에서 출토되었다.

상갑은 대부분 胴甲과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 찰갑을 착용한 쌍영총, 안악 3호분, 삼실총, 통구 12호분 등에서 보이는 무사는 찰편으로 된 상갑을 착용하였다. 그리고 쇠자갑을 착용한 안악2호분의 무사는 쇠자갑과 같은 철고리로 구성된 상갑을 착용하였으며, 누비갑옷을 착용한 감신총의

무사는 누비로 만든 상갑을 착용하였다. 다만 판갑을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덕흥리고분에서는 재질이 다른 빛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누비로 된 상갑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大腿甲과 脛甲

허벅지를 보호하는 대퇴갑과 정강이를 보호하는 경갑은 무릎에서 이어진 바지형과 정강이 부분을 좁게 여민 각반형이 있다. 바지형은 안악3호분, 쌍영총, 덕흥리고분, 통구 12호분, 안악 2호분, 삼실총의 환도수에서 볼 수 있고 각반형은 삼실총의 기병에서 볼 수 있다.

출토된 유물은 완전히 복원되지 못하여 그 형태를 알 수 없으나 일본의 활갑을 무장한 埴輪土偶를 보면 소찰로 표현된 각반형의 경갑을 착용하고 있다.

V. 결 론

고구려에서는 주로 기병을 중심으로 한 전투였기 때문에 전신을 중무장하고 馬甲을 입힌 말을 타고 長槍騎馬戰鬪를 함에 따라 유동성이 있는 활갑을 많이 착용하였고, 반면 신라에서는 보병을 중심으로 전투하였기 때문에 칠판으로 구성된 판갑을 많이 착용하였다. 그러나 5세기부터 고구려의 기마전술이 전쟁을 통하여 신라와 가야에 전파되면서 활갑이 남북간에 併用된 것이 유물을 통해 확인된다.

고분벽화를 통해 볼 때 갑옷은 활갑을 주로 착용하였고 그 외에 판갑, 쇠자갑, 면갑을 착용하였다. 투구는 종장관주, 만곡종장관주, 관모형복발주, 충각주, 几形冑 등이 착용하였고, 부속갑으로는 頸甲, 腰甲, 裳甲, 上膊甲, 肱甲, 大腿甲, 脛甲 등을 착용하였는데 이들 투구와 부속갑은 신라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유물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대부분의 부속갑은 몸통을 감싸는 胴甲과 같은 재질로 되어 있으나 활동하기 편리하도록 肱甲과 脛甲은 가죽과 같은 유기질제로 된 것도 있다.

남북간의 갑주는 재료나 구성법, 착용법, 착용상태 등을 고증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그리하여 고구려의 벽화를 통하여 유물의 完形을 고증하고 착용법, 착용상태 등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고, 남부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하여 갑주의 재료와 제작법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 國立晉州博物館, 「陝川礪溪提古墳」, 慶南, 國立晉州博物館 遺蹟調査報告 第2冊, 1987.
- 金元龍, 「壁畫」, 『韓國美術全集 4』, 서울, 同和出版社, 1973.
- 金正子, 「韓國 軍服의 變遷史 研究」, 民俗苑, 1998.
- 金鍾澈, 「高靈 地山洞 32號墳群」, 大邱, 啓明大學校 博物館, 1981.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天馬塚 發掘報告書」, 1974.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金海, 貝塚發掘報告書」, 『古蹟調査報告』 第1冊, 1920.
- 釜山大學校 博物館, 「東萊 福泉洞古墳群」, 『釜山大學校 博物館 遺蹟 調査報告』, 第5輯, 1982.
- 宋桂鉉, 「三國時代의 鐵製甲冑의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8.
- 申敬鐵, 「古式鎧子考」, 『釜山史學』 第9輯, 釜山, 釜山大學校史學會, 1885.
- 李康七, 「고구려 벽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갑주』, 放送月報, 제9호, p.15.] 1981.
- 李殷昌, 「韓國服飾의 歷史」, 서울, 世宗大王記念事業會, 1978.
- 末永雅雄, 伊東信雄, 昭和己未年, [挂甲の系譜], 東京, 雄山閣.
- George Carmeron Stone, 「A Glossary of the Construction Decoration and Arms and Armor in All Centuris and in All Times」, N. Y., Jack Brussel Publisher, 1961.